

# 독어독문학과

| 정혜원(09학번)

## GERMAN LANGUAGE & LITERATURE

문과대학은 외국어문학과와 인문학부로 나누어지는데요, 독어독문학과는 외국 문학을 배우는 외국어문학부에 속합니다. 외국어문학부에는 영문, 독문, 불문, 중문, 노문(러시아) 이렇게 다섯 개 학과가 있어요. 다섯 개 학과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학을 통해 그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 등을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학과에서는 알 수 없는, 독어독문학과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까요?



###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독어독문학과를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독일하면 맥주와 소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독일은 맥주 외에 철학과 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니체, 칸트, 헤겔 등은 모두 독일 철학자들이고요, 음악가 베토벤과 바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독일은 세계 최고의 철학, 신학, 음악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또, 순수학문 외에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기도 하죠. 자동차회사 BMW나 Mercedes-Benz 등을 떠올리면 쉽게 수긍이 되죠? 이렇게 독일은 사회·문화·기술·경제 전반에 걸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단순히 독일문학과 독일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독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어는 독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가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독어독문학과라고 해서 꼭 '독일의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로 쓰인 문학작품이나 독일의 주변국가에 대해 배우기도 하면서, '독일어문화권'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어와 '독문학'을 배우으로써, 독일어 문화권의 문화·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통찰하는 시각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어 문화권의 다양한 국가의 사회나 문화 등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현재 유럽 속 독일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을 키워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당당한 유럽 전문가, 독일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독어독문학과 공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유럽의 중심이 되었고, 유럽연합으로의 결속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명실상부하게 유럽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독어독문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에 대한 수요와 그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 Q&A

####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하려면 독일어를 잘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독어독문학과라고 해서 꼭 입학하기 전부터 독일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입학과 독일어 실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독어독문과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독일어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학과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전공수업을 듣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걱정하지



# URE

마시고 독일어와 독일문학, 어떤 것이든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독어독문학과로 오세요!

##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나요?

독일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진로를 선택하신다면, 전문 통역사, 번역사가 있고요, 독일이나 유럽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역전문가로서 유럽/독일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독일 유학을 통해 교수가 될 수 있고, 독일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실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계 대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자동차 회사에서부터, 제약회사 바이엘, 의류회사 아디다스, 우리가 유럽으로 떠날 때 이용하게 되는 루프트한자 항공사 등등. 이러한 독일계 대기업 입사에 관심이 있다면 독어독문학과에 오시는 게 좋겠죠? 입사 시에 독일어 구사 능력에 가산점이 있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더 쉽겠죠.

그러나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직업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학'을 배우는 것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느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든지 그 선택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특히나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는 언론계나 방송계로 진출한 선배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언론계나 방송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고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독어독문학과를 지원하는 데 어떤 특별한 적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언어에 대한 감각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좋습니다. 역시 외국어를 배우는 학과인 이상 '외국어 습득'을 즐기는 학생들이 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비록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 큰 관심은 없더라도 먼저 '문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도 독어독문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독일 문학에 관심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저 문학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도 독일 문학을 접하게 된다면, 독일 문학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독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독일어의 언어적 특징이나 문법 관련 수업** : 독일어의 이해, 독문법의 이해 등
- **문학 관련 수업** : 독어독문학의 이해, 최근 독일문학 동향, 헤르만 헤세의 문학 세계 등
- **사회·문화 관련 수업** : 독일 지역학
- **원어민과의 회화 수업** : 독어 연습(1)~(6), 이 외 독일어 인증 시험 준비 수업

## 졸업 후 진로

- 전문 번역가
- 전문 통역사
- 일반 대기업 및 독일계 기업
- 교사 및 교수
- 문화/문학평론가, PD, 기자 등

## Plus+

독어독문학도가 된다면, 독일 문학 작품 하나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겠죠?

저는 파크리트 쥐스킨트의 「향수(das Parfum)」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아서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냄새에 관한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 그르누이가 향기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기상천외한 이야기라, 폭 빠져들어 단숨에 읽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소설은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책과 영화 둘 다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문학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